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59호

발행일 : 2021.03.1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김민우 청년

이제는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항상 1순위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주위에 선한영향을 나타내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학생에서 청년이 된 김민우입니다!!
제가 3월 라이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뭐라고 시작할지 고민도 많이 했고 긴장도 많이 하였습니다 ㅎㅎ,, 어느 날 전수현 집사님이 카톡으로 라이프지 3월달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처음에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곧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으란 말이 있죠.

꼭 하나님 일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사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세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중 최근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마음 먹고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회사 면접을 보고 결과를 접했을 때 놀랍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구하며 시간 될 때마다 성전 밝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뒤에서 많은 기도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이구요. 학생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모님과 이제 청년이 되는 저를 위해 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언제나 내 편이 되며 나와 민성이 형, 그리고 동생 다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는 엄마 송미정 집사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도 힘든 시기고 또 저로서는 인생의 첫 직장이니 더욱 의미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회사 기숙사에서 첫날 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 잘려고 하였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거든요. 집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에서의 새로운 환경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여러 오만가지 잡 생각들이 잠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많은 분들께서 제 새로운 도전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위로가 되었고 용기 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잠들기 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며 잠을



청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전 보다 훨씬 편안하고 쉽게 잠재워 주셨습니다. 역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가까이하면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게 입사를 하고 나서 또 회사 내에서 치루는 시험이 있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 시험은 100점 만점에 27점이었어요.

낙심했죠. 이런 제게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모르는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뇌의 문을 열어서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요.

엄마 말씀대로 기도로 간구하고 2차 시험을 봤는데.... 나의 하나님은 정말 멋지셨습니다. 27점 받았던 제가 이번엔 91점을 맞았지 뭐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같이 간 친구 2명은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게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님 뻘이 있는 나의 삶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웃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저도 알게 모르게 사춘기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괜히 표정을 숨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배웠고 그 친구들과 놀기를 더 즐거워하고, 예배를 계속 빼먹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더 편해지고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식구처럼 지내던 교회 형, 누나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열심히 웃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회사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직장에 나와 보니 매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을 지킨다는게 쉬울 줄 알았지만, 상황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써 내려가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항상 1순위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연 청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 중인 김병연 청년입니다. 2월 26일부로 중위로 진급해서 지금은 중위 김병연이네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정보병과 장교로 근무 중입니다. 장교로서 평시에는 제 휘하에 있는 부사관 용사들을 지휘관(중대장, 대대장)의 의도대로 지휘하는 중간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관측된 첩보를 바탕으로 적의 작전을 예상해보거나 적의 부대를 판단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어릴적부터 20년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닌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란 성도님께 무엇인가요?

교회는 저에게 휴식처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싸워나갈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서 영성이 부족해지는게 느껴져요, 교회를 빨리 꼭 다시 나가고 싶어요.

4. 교회에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었지요?. 제대 후에도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가요? 아님 특별한 다른 일을 하고 싶은가요?

성가대는 계속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화음을 맞추다보면 오는 희열이 좋아서 계속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건 함께 힘을 모아 하는 사역이라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협동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헌신예배나 여름성경학교같이 큰 행사를 밖에 없지만 성가대는 매주 할 수 있으니까요.

5. 오늘 하루 동안 성도님의 식사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아침은 보통 안먹는 편이고 점심은 부대에서 치킨과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저녁은 동기들과 시내에서 돈까스를 사먹었네요.

6. 성도님이 희망하는 배우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럴겠지만, 저는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웃어른께 예의 바른 사람. 잘 웃어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7.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부모님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봉양을 하실건가요?

당연히 보살펴 드릴 겁니다. 형이랑도 의논을 해 봐야겠네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8. 주일에 목사님의 주일 말씀이 카톡으로 올라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소의 차이가 주는 느낌이 확실히 크게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못 느끼는게 정말 아쉽습니다.

9. 성도님은 평생직장으로 무슨 일을 꿈꾸시나요?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야망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신경쓰면서 살고 싶어요.

10. 성도님이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 20억이 생기면 십일조 제하고 부모님께는 얼마를 드릴건가요?

부모님께는 4억 + 세계일주 정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집에 불이 났어요. 한가지 물건만 갖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실 건가요?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갤럭시 폴드 2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12.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출산의 문제가 그것이죠. 기발한 출산정책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담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로 지방에 집을 많이 짓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을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에 맞춰서 집을 구하진 않고 집에 맞춰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역경제 부흥도 될거구요.

13.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제 장점은 하고자 하는건 반드시 하는 성격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편입니다. 단점은 조금 덤벙댄다는 점? 이 있습니다.

14. 기도 외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성도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요즘에는 전역을 생각하면서 저의 미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 성경 속에는 많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어요. 혹시 믿음 생활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최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분입니다.

16. 코로나가 꺾일 줄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군에서의 코로나 방역은 어떤가요?

코로나 기세가 심해지면 휴가를 안보내고 자택 대기를 시킵니다. 출근해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근 병영식당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네요.

17. 우리나라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고 보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퇴치를 소망하며 코로나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코 코로나
로 로 휴가를 못나가는
나 나! 농담이구요~~

코 코로나 사태는 곧 끝납니다.
로 로(노)력과 기도로 이겨냅시다.
나 나부터 시작합시다. 파이팅!

18. 자신의 신체 중 그래도 그중 제일 잘난 곳과 성형하고 싶은 아쉬운 한 부분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제 이마가 제일 좋습니다. 적당히 넓어요. 싫어하는 곳은 하관입니다.
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19.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온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화가 잘 안나요. 없는 것은 절제입니다.

최근 잠을 너무 오래 잡니다. 잠 절제가 요즘 잘 안됩니다.

20. 우리교회 친구 이성재 청년이 올해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추천 부탁드립니다. 잠언에서 발췌 부탁드립니다.

지식에 대한 말씀을 잠언에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한구절 보다는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기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식을 주신다 라는 이야기인데 공부가 막히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한다. 파이팅! 이성재!



<권찰 일기>

2021년 2월 19일

이신애 권찰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으러 오락는 연락을 받고 사진관에 다녀왔다.

예쁜 사진들을 보니 흐뭇 했고 오늘따라 엄마가 그리웠다.

다녀 온 후 공방을 시작하고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벌써 점심 시간이네.....

아침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 ^^;

더 배고파지기 전에 빨리 점심을 준비했다. 다행히 어머니와 친정엄마께서 주신 밀반찬들이 있어서 후딱 준비 할 수 있었다. 나도 부모가 되면 이런 작은 것까지 자식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일찍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치우고 보니..... 집에 생활용품들이 다 쓰고 없다. 급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생활용품 만들면서 친정 엄마가 " 비염 연고 좋더라" 라고 말씀 하신게 생각나 비염 연고도 만들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 오후 시간도 벌써 다 저물어 버렸다.

난 잠깐 이것까지만 더 만들어야지~ 했을 뿐인데 시간은 날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 버렸다. 요즘 들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쉽지만 나름 난 시간 활용을 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도전하면서 말이다. 이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부듯한지~~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가 만든 공방에 오는 많은 수강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줘야지~

정신없는 하루 중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빨리 이쁜 아가 만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편지>

하나님 저 지난 주일 예배 어찌 드린지 다 아시지요?

전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소설책을 읽다 걸린 적은 있어도
줄아 본 적은 없더군요..

밤 늦은 자정까지 학원에서 수업받아도 피곤하고 졸린 적은 있어도 대놓고
줄아 본 적도 없었구요.

우리 목사님 예배 때 성도들 조는 것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성도들 보실 때면 속상하시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딱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정말이지 처음으로 그렇게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졸았지 뭐예요.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등줄기에서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졸지 않으려고 정신줄 가다듬다 예배가 끝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헛되게 예배 시간을 허비하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 예배는 잘 드려야지~~~

몇 번이나 다짐하고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보다 훨씬 더 힘들게 드렸어요.

진짜 계속 졸았어요... 처음부터 끝가지요...

나는 평생 예배 때 졸지 않을거라 자신하고 살았고

성도들이 좋아서 목사님 속상해 하시면 조는 성도들이 조금은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는데... 교만 했던 거죠.

울고 싶은만큼 나 자신이 싫고 짜증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졸지 않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무장할 때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다음 예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조는지 졸지 않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배 내내 졸고 보니 겁이 나더라고요.

마리가 씌었나?

내 몸 어디가 병들어서 약해져서 그러나?

아니면 나이 먹어 늙어 그러나?

별에 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있기 때문어요.

기다리던 수요일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린 것도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수요일예배 때 하나도 졸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덕분이잖아요.

주일 저녁엔 기도 없이 마음만 굳게 먹고 드렸던 예배라 돕지 않으셨지요?

수요일예배는 기도로 무장한 예배라 그렇게 꼼꼼하게 도와 주신거구요~

이 작은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 형식적인 기도는 받지 않으셨던거로구나 느꼈어요.

그러다 이제 저로 하여금 전쟁과도 같은 간절한 모습의 기도를
받으시고서야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거 맞지요?

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 이 체험이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 체험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졸지 않으려는데 졸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드려서

예배 때마다 조는 문제로 괴로운 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사는 성도 김미진 올림

수산나가 고백합니다

한미경 성도

- * 어젯밤 설쳤는데 애들 방학이라 늦잠 잘 수 있음에 감사~
- * 당진에 유일하게 있는 고향친구....어제보고 오늘 또 봐도 좋아 감사~
- * 후니 책상 목공소에서 제작 한거 넘 맘에 들게 나와서 감사~
- * 오늘도 만보 걸어서 감사~
- * 늘 소소한 일상이지만 안정되고 편안함에 감사합니다~
- * 미웠던 머리 염색하니 세상 개운해서 감사
- * 이번 설은 간단하게 하기로해서 시장 볼 일 없네..
맘이 편하고 여유로워 감사
- * 살짝 생겼던 오해 대화로 풀 수 있어 감사
- * 엄마가 만두 사다 주셔서 우니 후니 간식 해결 감사
- * 친구가 어려운 일 해결해 줘서 감사
- * 어젯밤 2시간 잤는데 하루 종일 멀쩡해서 감사
- * 오늘 밤은 꿀잠 잘 것이기에 감사~ 모두 모두 굿 밤 되세요~~
- * 편식이 심한 후니 때문에 아침부터 닭볶음탕 ㅠㅠ
난 너무 싫지만 우니 후니 잘 먹으니 감사
- * 반가운 전화 감사
- *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
- * 교회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주보에 깜놀~
순간 많은 생각에 미안하고 감사함에 감사
- * 늘 한결같이 구역 식구들 챙기는 울 구역장님의 수고로움에 감사
- * 저녁은 김치볶음밥으로 간단하게 해결 감사
- *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수산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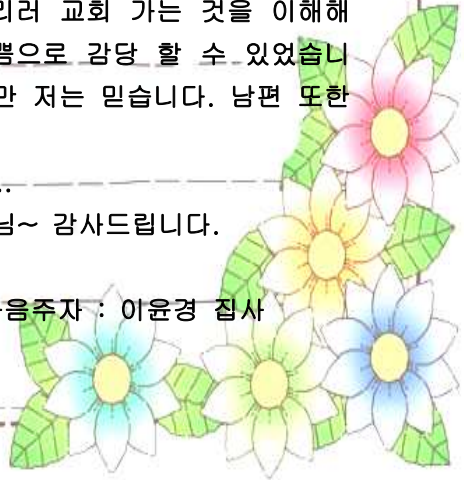


감사 릴레이

전수현 집사

지난 한 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 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마음에 평안과 넓은 마음 주셔서 세상의 핍박 속에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을 이해해 주어서 보건위원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태클 걸 때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남편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들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 이윤경 집사



<유머>

엘리베이터

어느 한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들 직장인 여의도 63빌딩 엘리베이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타는 줄 몰라서 어리둥절 하고 있는 사이, 어느 할머니가 타고 올라가 버렸다.

엘레베이터는 5층 까지 갔다가 내려 왔는데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아닌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내리는게 아닌가?

할아버지 왈

"아까워라, 이렇게 신기한 기계인 줄 알았다면 우리집 쪽구렁 할망구도 데리고 오는 건데 "



박서진 집사

설날 아침엄마에게
 마난 음식을 준비했지요
 정말 마이게 잘 드셨어요
 세배도 하고 응돈도 드리구 ㅎㅎ
 (김정임 집사)

이모저모





남편과 급하게 울산에 다녀왔어요
미리 계획했던 것 아니었지만
하회마을 스카이라이프 등
점사점사 곳바람도 쐬고 힐링하고 왔네요~~
(이윤경 집사)



밥이 제일 좋아요
짜장 다 먹고 밥 비벼 먹을래요
배부른데 게임 좀 해도 되죠?
오늘저녁 송찬이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임경아 권철)



집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
화려하진 않지만 정돈된 집이
너무 너무 좋아졌어요
(김미진 집사)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곳은 5곳



★ 에너지원

- essay.3/7 -

자동차는



디젤 혹은 가솔린 등을
에너지원으로
움직이고



우리 투님은



nooriart@naver.com

'믿음'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일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



★ '믿음'은 투님을 일하시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명품 인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고물’ 취급하면 고물 인생이 되고, 나를 ‘명품’ 취급하면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거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과 상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남아 있는 터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막차가 끊긴 시간인지라 택시를 잡기 위해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반갑게도 ‘빈차’라는 빨간 불빛이 보이더군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얼른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은 고생한 저를 다독여주시듯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기사님은 정갈하게 2:8 가르마를 하고 계셨으며 파란색 벡타이를 맨 모습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와, 기사님!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기사님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 명예퇴직을 하시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과정까지..... 집까지 가는 짧은 길에 기사님의 60년 인생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 도저히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택시 운전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손님과 인생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또 이리저리 맘 편히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좋네요.”

“그래도 택시 운전이라는 게 힘들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반대했을 거 같은데요.”

“아내부터 자녀들까지 반대도 심했지요.

그래도 임원까지 하던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주변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다고..... 뭐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를.....

오랜 시간 택시 기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도 유쾌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다 도착할 때쯤에 기사님은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아들뻔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흘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주변 환경과 상황만 탓하기 전에 자신을 명품이라 생각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빛을 발할 때 언제 어디서나 명품으로 대접받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최고의 명품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세요.

그럼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 경 퍼 즐

					1 병		안		
				2 목					3
				소		4	호		아
			5 여			성			
	6 선		자						
7 나									

가로

1. 아픈 친구를 찾아가서 위안을 해주는 일. 병원으로 000을 가는 일!
2.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전도사님 장로님 말고 제일 귀한 직분.
4.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는? 아래 5번 열쇠에
답이 있단다.

5.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성의 이름.
6. 엘리야, 엘리사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00라고 부르지.
7. 봄에 산 속에서 00을 뜯어다가 참기름에 무쳐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단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

세로

1. 군사와 비슷한 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변을 돌자 성 안에 있던 00들이 비웃으며 놀렸지?
2.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00가 들려왔단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은?
4. 남성의 반대말은 00!
5. 남자의 반대말은 00!
6.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00이라고 할 수 있지? 00은 생일날에만 받는 게 아니란다.
7. 일곱째 날 여리고 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00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지난호 정답>

	안	식	일						
번	개		기	도		우	상		
				시	내	산			
					시				
				성	경				
			공	경					
			놀						
			이	웃					

드보라

1. 랍비뚱의 아내이며 여선지자이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침략했을 때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하며 그와 함께 싸워서 가나안 군사를 물리쳤다. 이 승리가 "드보라의 노래"라는 아름다운 시의 제목이 되었다(삿 5:).



2. 드보라는 "별"이라는 뜻이다. 오늘 소개하는 드보라는 여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때 따라온 유모 드보라이다.

드보라는 이삭의 가문에 들어온 아람 여자이며 단순한 유모 이상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큼 충성되고 성실한 여자였다. 몇 년 동안 시한부로 유모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양육할 때부터 라반의 가정을 거쳐 이삭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두 가정의 인척이나 가족같이 합류된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았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유모였다. 리브가를 양육한 유모요, 에서와 야곱의 양육을 도운 유모요, 나중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과 딸 디나까지 모든 양육을 보살핀 유모였다. 리브가를 위해서는 젖을 먹인 유모였으나 에서와 야곱을 돕고 야곱의 많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돌보아주는 유모였다. 야곱이 메소보다미아의 밋단아람(하란)에서 뽕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였었다.

유모는 종과는 달랐지만 주인과 친분이 생기고 서로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 평생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의 자손 몇 대를 거느리며 유모와 양모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였다. 드보라가 1백55세에 세상을 뜨자 뽕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러 기념했는데 "곡하는 나무"라는 뜻으로 야곱이 드보라를 잊지 못하는 표가 됐다.

▷ 교훈과 적용 ◁

첫째,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은 법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다.

둘째, 충성된 헌신과 봉사는 혈통과 가족의 조건을 뛰어넘는 더 좋은 가족의 인연이 된다

시사용어 Briefing

헝지트(HK Exit)

2019년 3월 '범죄인 인도법'에 반발해 시작된 홍콩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불안을 느낀 외국인 자본이 홍콩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뜻한다. '홍콩(HK)과 퇴장(Exit)'을 합쳐 만든 신조어이다.

디지탈稅(Digital Tax)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방안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되자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조치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메뉴 심리학(Menu Psychology)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메뉴판을 받아든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메뉴 심리학은 고객의 그런 갈등 상황을 겨냥한 마케팅이다. 메뉴 심리학자들은 과학과 심리학을 활용해 레스토랑 업계의 통념을 깨고 매출 향상을 돕고 있는데, 오늘날 메뉴 심리학은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메뉴 심리학으로는 음식의 메뉴판 위치를 들 수 있다. 팔고자 하는 음식을 비싼 음식에 붙여서 배치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손님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메뉴 이름을 독특하게 짓는 메뉴 네이밍(Naming)도 메뉴 심리학의 일종이다.

미 백악관 정책 차관보 강영우 박사의 아내 석은옥씨의 고백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강영우 박사.
그의 뒤에는 한평생 그의 지팡이가 되어준 아내
석은옥씨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석은옥씨가 직접 말하는 감동 인생.



“최고 엘리트였던 내가 앞 못 보는 남자와 결혼,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온 감동 인생 사연”

이제 우리 부부는 인생 욕심을 넘겼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
마등처럼 지나간다. 나의 인생을 뒤바꾼 한 맹인 소년과의 만남! 그 후 자원
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그의 그림
자가 되어 살아왔다.

처음엔 고개를 젖던 사람들도 이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우리 부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노력이 있
었다.

"강영우 박사와의 운명적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숙명적이었다.

그가 평생 단 한 번 걸스카우트를 방문한 그때, 나는 걸스카우트 신입회원
으로 그를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저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맹인 중학생이 10년 후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
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대로 도망쳤을 것이다. 그때 그는 맹학교
중등부 1학년생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다.

가난과 실명의 고통에 찌든 모습을 상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학생은
외모만 봐서는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
학생만 힐금힐금 쳐다보았다.

누군가 그를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런 용기
가 나왔는지 “내가 다녀오겠다”며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학생의 손을
덥석 잡고 광화문 사거리로 나섰다. 그때 처음으로 “숙대 영문과 1학년 석
은옥이에요.” 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열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열다섯 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 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일혈로 세상을 뜨자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재활원을 전전하며 남편은 수년간 방황했다. 자살도 여러 차례 기도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뒤,

“갓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열 가지를 감사하자”며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처음 만난 때는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게 아니어서 남편은 어렵풋이나마 내 젊은 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빛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완전 맹인이다.

그때부터 주말이면 맹학교 기숙사에 찾아가 책도 읽어주고, 안내도 해주는 일을 1년 정도 봉사하다 보니 정이 들어, 그를 동생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무남독녀 외동딸로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잘됐다 싶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당시 나는 그가 투병과 방황으로 여러 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대학생과 중학생이라는 것만 생각해 부담 없이 그의 누나가 되겠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2년 정도 지나 그의 성적표에 있는 생년월일을 보고 한 살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양친이 안 계신 동생이 생기니 누나로서 할 일이 정말 많았다.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면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가야 했고 빨래, 장보기부터 대학 진학 준비에 이르기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해야 했지만, 동생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었다. 누나 동생으로 6년,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이다. 당시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맹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차장이 밀어내기 일쑤고, 가게에서는 재수가 없다며 오후에 오라 하고, 식당에서는 구석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주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그와 만난 지 5년째 되던 해, 그동안 혼자만 생각해온 유학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는지, 그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며 반대했다. 나는 좀 당혹스러웠지만, 차분히 그를 설득했다.

결혼을 해서도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천직으로 알고 계속할 텐데 더 늦기 전에 유학을 다녀와야겠다는 말에 결국 그도 동의했다. 나는 1967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동안 정이 든 그와의 이별은 큰 아픔이었다. 게다가 처음으로 가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겹쳤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누나를 보내고 혼자 힘으로 다가오는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불안이 겹쳐 이별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내가 떠난 뒤 동생 영우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대학 입시에 전념했다. 그리고 1968년 연세대 문과대 교육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맹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원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입학원서조차 낼 수 없다니...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미국 땅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런데 4주 정도 지나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영문과 교수 한 분이 대필해 주어 입학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교육과에 10등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1968년 3월, 서울맹학교 고등부에서 연세대에 입학해 그동안 박박 깎은 머리를 기른 채 교복 대신 신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보내주었다.

정상인들과 같이 공부하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첫 학기부터 장학생이 되었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나는 15개월 만에 귀국했다. 그동안의 이별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누나 동생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1968년 12월 22일,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함께 연세대 백양로를 걷던 중 영우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그를 무척 좋아한 데다 남은 생을 시각장애인 교육에 헌신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그를 반려자로 맞으면 남편에게 맹인 동생을 이해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으니 잘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우의 사랑을 받아주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장래를 약속한 우리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약혼식을 올렸다.

무남독녀 외동딸을 둔 홀어머니가 애지중지 기른 딸을 맹인에게 준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하셨지만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친구들은 더 심했다.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쳐다보며, “관상을 보면 팔자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는데...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으면 뭐하니? 너는 좋아서 결혼한다 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생각해

봐. 아버지가 장님인데” 하고 말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 2월 26일, 대학생이던 약혼자를 졸업하기까지 만 3년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이 서른이 다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난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은 편이었고, 모두 판사, 의사, 약사, 대기업 간부의 부인이 되어 있을 때 연하인 맹인 학사를 신랑으로 맞은 것이다. 그래도 어찌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 하객들의 놀림을 받을 정도였다.

"맹인 아내로서 내가 겪은 고통"

1972년 8월, 우리 부부는 가슴에 큰 뜻을 품고 LA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에는 장애가 해외 유학의 결정사유에 속했다. 그 항목을 삭제하고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이 될 때까지 몇년 동안 겪은 마음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피츠버그대학교 9월 학기 개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한미재단총재와 연세대 총장이 공동으로 제안한 청원서에 문교부장관이 서명함으로써 미국 유학의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LA에 도착해 여러 해 동안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신 양부모님을 만나 일주일을 보내고 피츠버그에는 개강 전날 도착했다. 당시 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서울을 떠나기 직전까지 맹인 재활센터에서 일했고, 입덧도 심했다. 그러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돕지 않으면 강의실에도 갈 수 없어 편하게 쉴 수도 없었다. 하루는 남편을 강의실에 들여보낸 뒤 도서관에서 책을 녹음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강의가 끝난 지 30분 이상 지난 시간이었다. 온 힘을 다해 강의실로 뛰어가 보니 그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하고 부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며 화를 버럭 냈다. 나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항상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어 섭섭한 마음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미국에 와서 처음 한 부부싸움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보행훈련을 받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강의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미루던 차에 결단의 기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행훈련을 받아도 자주 다니지 않은 곳이나 생소한 지역을 갈 때는 여전히 정안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행훈련을 받아 나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를 안내해주어야 했다. 어린 두 아들을 남에게 맡긴 채 남편의 대학원 강의실을 향해 떠날 때,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남편의 강의가 먼저였다. 맹인 아빠에게 젖먹이 아기를 맡기고 도서관에 자료 심부름을 갈 때면 혹시 불이라도 날까 불안했지만 그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것이 먼저였다. 몸이 아플 거름도 없이 매일 동분서주하는 고달프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수업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이 만료된 것이다. 닥치는 대로 막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병원 청소원으로 겨우 취업이 되었는데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어느 날, 캠퍼스 근처 공원에서 그네를 타는 한 맹인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다가가 한국에서 유학 온 맹인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그네를 밀어주던 남자가 자신이 남편이라고 했다.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우리 사정을 이해할 것 같아서 초면에 우리 형편을 털어놓았다. 그 부부는 우리에게 자기 집 3층을 내 줄테니 와서 함께 지내자고 했다.

대신 식사 후 설거지를 해주고, 두 내외가 외출할 때 어린 두 자녀를 돌봐달라고 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가족의 생계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할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집에 살면서 매일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도 행복하기만 했다.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지않아 박사가 될 남편을 내조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남의 식모살이나 하는 처지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오히려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행복했다. 우리와 처지도 같고 동년배라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를 배우는 계기도 되었다.

또 두 살 된 진석이도 네 살, 다섯 살이던 그 집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둘째 아이 진영이가 생겨 더욱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울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내외는 출세지향적이 아닌, 성취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맹인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물리적, 심리적, 법적, 제도적 장벽을 넘을 때마다 오히려 성취감을 느꼈다. 또 쾌락보다는 보람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승리감과 보람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다. 1976년 4월 25일, 남편이 드디어 피츠버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당국의 배려로 박사복을 입은 남편을 총장 앞으로 안내하면서 느낀 보람과 행복이란….

“마음껏 사랑하고 즐긴 것은 결코 잊히지 않으며, 자신의 일부분으로 남게 된다”는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났다. 물론 아무나 맹인의 아내가 되어 어려운 내조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때로는 희생을 요하는 힘겨운 내조를 할 때도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그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비록 학사복을 입었지만, 남편이 받은 박사학위가 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느껴져 더 행복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겹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편은 고국에 돌아가 대학 강단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해 무직자로 8개월을 보내기도 했다. 맹인이 어떻게 눈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논문지도할 수 있겠느냐며, 어디에서도 남편을 채용하지 않았다.

무직자인 박사 남편, 아직 어린 진석이, 갓 태어난 진영이,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식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았을 형편이었다.

장학금으로 지급되던 생활비가 졸업과 동시에 끊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졸업과 동시에 만료된 유학생 비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남편이 포스트 닥터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의 일이다. 오도 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배수진을 친 남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성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테니 인내하며 좀더 기다려봐요. 부디 아무 걱정 말고 연구에 몰두하고 직장 찾는 노력이나 계속하세요.”

지금도 남편은 당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가장 고마웠다고 말한다. 하루는 나의 격려가 통했는지 남편이 면접을 다녀오더니 취직이 되었다고 했다. 기적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영주권이 없어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학생비자로 취직이 된 것이다. 남편은 인디애나 주정부 교육부에 근무하게 되었다. 1월 3일 첫 출근을 하게 되어 서둘러 인디애나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인디애나에 도착해 남편의 첫 출근과 함께 나는 운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벌써 30년이 흘렀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인디애나 주정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저녁에는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 매주 주회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운전사 역할을 해야만 했다. 어쩌다 병이라도 나서 내가 누워버리면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질텐데, 다행히도 그런 기억은 없다. 아마도 내조하는 기쁨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이 엔도르핀을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

남편이 인디애나에서 직장생활을 한 지 2년 가까이 되던 1987년 9월, 유학을 떠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한국 언론은 '우리나라 최초 장님 박사 탄생', '한국 최초 맹인 박사, 금의환향' 등의 제목으로 남편의 귀국을 대서특필했다. 그때 그 기사를 본 연세대 윤형섭 교수가 <조선일보>에 '평균점수'라는 제하의 칼럼을 썼다.

내용인즉슨, 앞 못 보는 장님이 박사가 되었다기에 기사를 읽어보니 그 뒤에는 남편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며 석사학위 교사까지 된 부인의 희생적인 사랑과 내조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여성의 평균 점수를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1983년 6월 5일은 남편이 최초로 국제무대에 등단한 날이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 로터리 세계대회에서 그가 연설을 한 것이다. 23년이 지난 오늘도 나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1만6000명의 세계 민간 지도자가 모인 단상으로 남편을 안내하는데, 연설자도 아닌 내가 극도로 긴장해 떨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군중의 시선을 볼 수 없어서인지, 그다지 긴장하지 않고 연설했다.

때 느낀 감회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불쌍한 맹인 중학생을 안내하기 시작한 지 40년, 이젠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자랑스러운 남편을 안내하면서 느끼는 감회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팀으로서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받았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450만 명에 달한다. 그중 2,500명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며, 그중 500명은 상원

인준까지 받아 이름 앞에 ‘Honorable’이 붙는다. 먼 이국땅에 유학 와서 이민자로 정착한 지 사반세기 만에 남편은 ‘Honorable’이라는 경칭이 붙는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가 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의 지팡이가 되어 부시 대통령 앞으로 그를 안내할

1972년 신혼부부로 미국 땅에 도착할 때 태중에 있던 진석이는 링컨 대통령의 장남 로버트 토드와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하버드대 동문이 되었다. 그리고 안과의사의 꿈을 이루어 듀크대학병원에 근무 중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를 맞았다. 작은아들 진영이는 필립스 앤도버 아카데미 출신으로 부시 대통령 부자와 동문이다. 약관 27세의 나이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고문변호사이며, 아내 역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이민자로 미국 땅에 와서 교육자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교육인명사전, 미국 여성명사인명사전에 올라 역사 속에 작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지난 2003년 5월 29일, 내 생일에 아들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케이크를 앞에 두고 축하 노래를 부르려는 순간 남편이 말했다.

“아들, 며느리 네 명의 박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니 당신 정말 행복하겠소.”

진영이가 웃으며 덧붙였다.

“네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잖아요.” 그렇다. 한 집에 다섯 명의 박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의 지팡이가 되어 헌신적인 아내로, 두 아들을 잘 키워 훌륭한 며느리들까지 본 어머니로 살아온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처럼 선명한 비전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신앙 안에서 명문가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 준 남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루디아여선 - 3월 21일 오후5시
마리아여선 - 3월 28일 오후5시
2. 종려주일 / 3월 28일
3. 고난주간 / 3월 29일~4월 2일 - 금식기도
4. 성찬예식 / 4월 1일 오후 7시

◎ 공지사항

1. 3월 생활실천표어 / 네 손을 그곳에 얹으라
2. 3월 신앙서적 /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양시'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김병연청년 / 계급 승집(소위 ⇒ 중위) - 2월 26일
2. 개업 / 조경환성도 - 홀랄라 치킨, 2월 26일
3. 결혼 / 정소진권찰(남편 차영호) - 3월 6일 낮12:10
설악웨딩타운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